

※주의사항

본 문서는 설교말씀의 오기와 누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재상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장소 : -

시간 : 20:00~20:52

♪ 꿈을 이루는 길

♪ 주 계신 이곳에

미련 없는 사랑

- 2021년 3월 16일 청기와에서 새벽예배 후 작곡하신 곡.
- 새벽예배 후 3곡, 316본행사 중 1곡, 총 4곡 작곡했는데 그 중 세 번째 곡.

☐ 가사

사랑하여 휴거되어	주인 되어 신부 되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과 같이 모시고서	살아갑니다
미련 없는 사랑을	영원한 사랑 사랑입니다
땅에서 하늘에 닿도록	
신부되어 하는 삼이 낙이란다.	이제는 갈 곳 없다
축복이란다.	이제는 오로지 오로지
영원한 행복입니다	앞만 보고
	천 년 역사 혼인잔치
이제는 갈 곳 없다	주인 되어 신부 되어
이제는 오로지 오로지	살아갑니다
앞만 보고	영원한 사랑 사랑입니다
천 년 역사 혼인잔치	사랑 사랑입니다



☐ 곡 사연 설명

네 오늘은 명곡의 사연의 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늘 해야 돼요.

자, 이 노래는 미련없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아까 화면에 자막에 나오고, 화면에도 나왔죠? 청기와에서 말씀의 단상에 서서 그때도 아마 무슨 모임이 있었던것같아요. (모임을) 하고서 그때에 노래를 현장에서 부른 노래인데, 3.16 새벽예배 드릴 때 같아요. 그래서 은혜 충만 또 하나님 해주신 것 충만해서 이와같은 곡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할 것도 없이 노래와 같이 이제는 확인됐고 이제는 우리는 벌써 43년이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펴 왔는데 까짓거 하루면 확인되는 일도 있지만 역사라 43년이나 확인됐는데 뭘 또 여러가지로 따지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성령이 가사 줘서 현장에서 하나님 곡을 노래로 역시 읊었습니다.

노래로 시대를 증거한 노래예요. 이것은 사랑하여 우리가 휴거됐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사랑해서 그 남자랑 살게 됐다, 사랑해서 그 여자랑 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휴거됐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100년 천년 생각해도 이것이 뜻을 이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휴거된 자들이 말하는거예요, 사랑해서.

사랑 안 한 사람은 휴거 안 되죠 사랑도 여러가지요, 사랑의 수백가지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고 하니 신약의 사랑, 새 시대의 사랑, 구약의 사랑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 시대급 사랑했던 말야. 이 시대급 사랑, 이것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자, 성령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낸자를 사랑해서 뜻을 이룬 자들입니다.

이것이 창조목적의 천지창조목적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사랑이? 핵심은 사랑.

그래서 소망도 그리고 믿음도 없어지겠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는거야

이러므로 삼위일체 사랑 미련없이 한 사랑 이로 인해서 우리 휴거됐다 더이상 없다 이 길을 가자 이러니 누가 다르다고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고 우리는 이미 한 바인데 영원한 축복이다 이것이 영원히 갈 길이다, 이것이 인간태어나서 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역사 혼인잔치 역사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언한 그 때가 되면은 세상에 주가 오면 그와같이 천년동안 혼인잔치 한다, 뭐 갖고 하죠 혼인잔치? 음식 갖고 하지만 음식은 말씀 그리고 또 정신적인 세계는 사랑. 이제는 우리가 주인됐으니까 흔들림없이 살자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듣고 신나게 들었죠? 우리는 노래의 주인공돼서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아니라고해도 우리는 영원히 믿고 갈거야. 우리는 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믿는고하니 자기가 남자는 내가 남자다 이러한 자부심 갖고 살고 나는 여자다 이러한 자부심 갖고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누구도 못 꺾습니다. 역사가 지금 이미 떠났단 말이에요 천년역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볼 때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대 그 시대말씀을 쫓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73개국 나라 따라가고있단 말야. 그러니까 확인된 바요. 그리고 이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가자!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또 노래 들어보고 우리 깊이 노래 들어봐요.

그리고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 노래로 가면서 우리 또 들어보자고요.



범사에 기도하라

- 2021년 6월 1일 알파절에 월명동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신 후 밤 9시경 작곡.
- 이 날은 총 5곡 작곡, 그중 4번째 곡.
- (이날부터 섭리사 전체는 여호수아 기도가 시작됨.)

☐ 가사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라	얼마나 좋으라
범사에 기도하라	
염려 근심 걱정 환난	너도 나도 할말 이때에 해야 한다
모두 저마다 환경 따라	때 지나면 서산에 묻히는 해와 같이
삶에 따라서	캄캄한 어둠이 덮친단다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할말 있으면	범사에 기도하라
내게 말하라 하시었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 곡 사연 설명

두 번째 곡을 들었습니다 두번째곡도 설명해줄게요 간단하게요

이 때는 6월 1일은 알파절입니다. 알파절날 축구하고 몸도 풀고, 그리고 목도 풀고, 노

래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성령께 나 노래하고 싶다고 하니 노래 달라고 했더니만 그 때에 알파절이니가 알파절 때의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알파절때 기도잖아, 기도. 기도선포했잖아 기도가 계속 하고왔잖아요?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은 신 약시대때도 한 말이야.

가사를 보니까 기도를 하고 기도 맛을 들이고 기도를 한참하는 우리들 아녘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염려, 걱정, 근심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가사를 성령께서 속시원하게 줘서 노래로 아주 강렬하게 읊었습니다.

그때 축구해서 몸이 풀리고 해서 아주 음(성)이 좋았어요. 지금은 목이 쉬었잖아요.

왜 목이 쉬었을까? 요즘에 목이 쉴 일이 있어요/ 무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의학적으로 진찰하니까 무리한다. 뭘 하느라 무리하냐 이곳저곳 청소할 곳이 너무 많습시다 그렇다고 청소한다고 또 오지 마요. 알파절 때의 일이니까.

그래서 이 노래 가사는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그냥 걱정으로 염려로 노동으로 모여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선생도 43년동안 기도를 꽤 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다 각자 기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서 너무나 불가능한 것도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 해결됐어.

중국에 있을 때에 조사관을 때도 두건 씌워놓고 산속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때 불안해서 ‘나 성자다’ 했어요 옆에서 걱정마라. 그래도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대화의 기도했지 그 때. 그랬더니만 ‘야 다죽어도 너 안죽어 걱정마 네 옆에 성자가있는데 성자를 어떻게 보는거야’ 그런 계시가 왔어요 내 옆에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지금 두건 씌우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 같다고 했더니만 아이고 나 못믿으면 나 믿을 때까지 놔둬버린다. 나중가서는 절대로 내가 그러면 내가 과거에도 월남에 있을때도 나 죽어 가는지 안죽어가는지 한 가지만 비밀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고 갈 때까지 하나도 안 물겠다고 했어요. 하나만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푸른하늘 쳐다볼 때 ‘내가 불꽃같이 너를 살핀다 파란 눈으로 너를 살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찔끔나면서 아 안죽어간다는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작전할 때마다 옆에서 죽으니까 막 무



서운 공포가 오는거야 그걸 안 죽어간다는것만 믿고 나는 무조건 안죽어 아 그때 한가지 안 물어봤다. 뭘? 안 죽어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불구의 몸으로 가는가? 그걸 안 물어봤다 하고 그때에 걱정했을 때 그것도 마음으로, ‘야 내가 사랑하는데 불구의 몸으로 가게 하느냐? 사랑하는데. 너 산에서 기도할 때 내가 사명 은근히 깨우쳐줬는데 은밀하게.’ 그랬어요. 그때 생각하면서 역시 또 그생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염려 걱정 많은 일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라, ‘할 말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 주권 주마. 말하는 주권.’ 하나님께서 직접 곡을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중에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와같이 하라 얼마나 좋으냐. 기도하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할 말 있으면 하라 왕앞에 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할말있어? 할말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줘요. 거진 들어줍니다 할말하라할때는 각오하고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면 때놓치면 서산에 묻히는 해와같이 금방 묻히고 끝난다.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기도로서 수금을 울리는 노래 했죠? 우리들이 지금의 때 기도하는 기간에 이 노래가 정말. 이 같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꼭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섭리사도 내가 보거든? 다는 못 봐도. 이야 무섭게 기도해요. 완전히 비가 그렇게 와도 눈이 와도 새벽에 와서 꼭꼭 기도하더라고 내가 그때 이야, 재도 불붙었네 내가 젊었을때 20대 때 불붙듯이 불붙었네.

여러분 불이 붙어야 돼 알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한다고. 그런데 기도가 깊이 안들어가거든? 그게 환장하는거야 기도가 깊이 안들어가면 어떻게 해야하는고하니 지난날 얘기 자꾸 해, 그러다보면 시동이 걸려, 지난날 일어났던 얘기를 자꾸 하고, 그리고 나 약수물 먹을때도 기도 많이 하는데 한창하는데 뭔가하니 나 병좀 낫게 해주세요 나 무슨병있으면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한다고 그 몸 갖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나 만나서 나를 따르는 사람 전부 약수물 못먹는 사람까지 병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약수물먹고 안 늙게 좀 해달라고 약수물 먹고 아주 마음도 착하게 약수같이 순수하게 나도 약수같은 사람이 돼서 사람도 병도 낫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하다보면 한참 걸리더라고, 소원 몽창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놓

고 약숫물 먹으면 육신이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그렇게 알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 곡을 4 곡이나 5곡이나 이날은 총 5곡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5곡 작곡을 주시고 성령이 5곡을 넣어준 거야 어떻게 성령이 줘? 머릿속으로 넣어줘여 그래서 바로 바로 한단어 하고 그 다음단어하는거야 알겠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노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들어주신단다. 이렇게 노래 되잖아. 기도만 갖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기도에 불이 붙는 기간이 더욱 찬란하게 되어야 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뭔지 압니까? 설명하는 것도 설교고 가사가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없네 하지말고 명곡사연때 노래로 스며들고 은혜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음곡은 한곡남았네 또 설명해줄게요 듣고.



휴거는 사랑이다

- 2018년 12월 4일 <제일은 사랑이다> 주제말씀을 가지고 지으신 곡

☐ 가사

사랑이 사랑이 무엇이기에	오늘도 너는 사랑을 잊지를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을 창조하셨나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삶이나
	무슨 희망이나
천지 만물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네	사랑 때문에 오늘도 너를 돕고
사람도 사랑 때문에	사랑했노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영원한 사랑을 위해
인생들을 창조하셨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오늘도 사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사랑 나도 사랑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한 사랑이다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마음 뜻을 목숨도 다하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한 사랑이다	사랑이란다
	마지막 목적은 사랑과 휴거란다

☐ 곡 사연 설명

자, 이제 마지막 곡 들었는데 휴거는 사랑이다 라는 이런 주제로 했어요 이 노래를 한 때는 2018년도 옥에서 나와서 그 해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마음의 깊음이 깊었고, 각종 각색의 하늘의 사연을 정말로 더욱 읊고 있던 때입니다.

노래 가사도 보니까 너무 깊고 깊고, 노래도 차분히 천천히 불렀습니다. 사랑이 무엇이

길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모든 목적이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깨달은 자나 알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계에 가서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깊이 깨닫지않고는 사랑의 깊은 사연을 가사를 쥐도 읊기 어렵다는거야 이것을 알고 읊었어요. 알고 노래했다니까. 이런 노래들은 6천년 역사가 끝나고 천년 새로운 천년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보아도 노래를 보아도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거야.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사망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 일에 사망길을 가는 사람이야 왜? 모르니까. 아는 자는 생명길을 가요 아는 자는 대낮, 모르는자는 깜깜이라고 했어 이와같이 사랑의 하나님 창조한것을 근본을 깊이 깨닫고 나 사랑때문에 나로 어려움을 겪고 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가 하나님 사랑치 않고 주를 사랑치안않고 성자도 성령도 사랑치 않았으면 이런 일 안했잖아요? 사랑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나. 그 때에 더욱 깨닫고 천지창조목적 배웠잖아요.

이런 사랑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창조했으니까 사랑의 세계를 꼭 이루라. 우리는 이뤄놓고 있기때문에 졌지 안이뤄놓고는 주지 않습니다. 물건같은거 작은 물건은 외상으로 주지만 정말비싼거는 외상으로 주질 않아요. 이런 여러가지를 보고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마음 뜻도 목숨다해서 사랑하려고 했죠. 사랑 못 이루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이뤄야, 형제지간에 사랑 또한 부자지간에 사랑. 또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성자의 사랑을 백프로 서로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노래를 읊어서 노래를 하게 됐는데 노래가 내용이 깊고 깊이 읊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 전달로 하지말고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안돼 그게 쉬운것이 아냐 남들은 비꼬고 어췌다 비방하지만, 가봐 비방한 사람 어디에 있는가 저 흑암에서 비방하고 있는거야 지옥에 앉아서 비방하고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가는 사람 비방은 안 합니다. 겪었기 때문에. 그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나와 모든 악평하는 자들로 가보지 않았어. 그전에 교회왔다고? 변질됐는데. 그때는 야심갖고 하죠. 어떤 뭐 명예나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때문에 안됐죠. 이와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천지창조 사랑 이룬 것이 쉬운것이 아냐. 누가 이뤘어? 구약급으로 이뤘지, 신약급 이뤘지, 이 시대 급이 최고의 사랑 이루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이루는 세계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노래를 사랑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비밀의 사랑 노래 준 거예요 1300곡을 2-3년 동안에 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고을 줬고 그래서 요즘도 노래를 부르시면 여러분들도 노래를, 굉장히 귀한것이 뭔지 압니까 가사가 귀하고 ,그리고 곡이 그렇게 귀해 곡. 하나님 곡붙였단 말야 웬만하면 그 곡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 가수들 있지요? 가수들 원곡을 배우면 가수가 되죠? 그 사람이 인정해요 인정한다고 대회 때 나오면 그 사람에게 점수를 제일 많이 줘요 내 곡을 그대로 했다고. 하나님의 의 곡이에요. 그래서 곡이 사연이 그렇게 깊어요 곡의. 곡 값이잖아 곡값. 가사값 곡값. 가사는 성령 곡은 하나님 노래는 내가. 읊는 건 여러분 자유롭게 읊어야 돼요 곡만큼은 아주 기가막히게 따라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곡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 곡이 한 3천, 4천가지 곡이 있어 거기를 피해서 곡이 나오기 어려워요. 내 곡은 거기 피해서 왔어요,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곡은 만들어버리잖아? 메들리로 부르고 다있어요 다 있습니다. 내가 갖고있는 곡만 없는거야 그래서 하나님 준 곡을 웬만하면 부르도록, 어렵지만. 부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

내가 하는 곡은 그 사연을 깊이. 마치 여러분들 나와같이 지휘한다면 금방 알아주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알아줘요. 별로 안 알아줘요 왜? 그런 지휘는 나도 할수있다. 그러나 나의 지휘는 어려워요 내가 하는 지휘는 진짜 어려워요 신적지휘인데. 이와같이 곡을 웬만하면 배우라는거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내앞에 노래할때는 내가 부른 곡으로 할 때 무조건 70점이니까. 내가 하는 곡을 흉내내서 할 때. 그 곡을 귀하게 볼 것. 또 하나는 가사를 귀하게 보고 그대로 할 것 알겠죠? 그리고 노래는 개성으로 부를 것 음성은 각가이니까 곡은 역시 분명히 노래는 나는 음악가예요. 나는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천주적인 음악가예요 한번 물어보라고 하나님께 천주적인 음악가가 누가 있나. 천주적인 지휘가고. 지휘에 나 따라오기 힘들죠? 나 따라오게 세상사람중에 나같이 하는 지휘를 못봤죠? 여러분들 지휘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냐 완전히 터득해야 그만치 할 수 있어 음악에 대해 완전히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전위음악같은것도 잘하잖아 피아노. 안 배웠거든 그와같이 여러분들도 완전히 터득해야 합니다 이곡을 여러분들이 자꾸 해버릇 해. 음성도 내고 선생님 봐요 벌써 원곡이 노래 잘부르기 힘들다고 요즘에. 곡은 오

는데 기가막힌 곡이 와요. 하나님 곡은 어마어마한 곡이라 상상도 못하는 곡이에요. 그런 곡을 따라해보라고 그걸 그래도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주로 표현한거야 그 곡을 꼭 옛날 곡 사용해서 불렀잖아 지금은 안 나와요 그 곡이 안나온다고 목청을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축복줘서.

자, 오늘 이와같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휴거의 세계, 사랑이다 하면서 줬는데, 여러분들도 은혜에 불붙어 하고 가사에 불붙고 그리고 곡에 불붙어서, 이 곡이 진짜 엄청난 곡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이 곡이 너무 수금을 울리고 가슴짹하는 곡이라고. 앞으로는 선생님이 봐서 특송도 하려고 해. 주일도 특송도 내가 신청할거야 내가 하면 받아주겠지. 내가 특송한다면 받아주겠지.

왜? 내 노래 들어보고 싶어하니까. 누구든지 내 노래 듣고싶어하니까. 그죠? 특송도 봐서 이제 음성 가다듬도 하려고 해요.

내가 한다면, 휘날리고 하죠. 일을 해도 남이 시키면 시원찮아. 내가 해야 돼. 내가 한 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림도 없어 못 따라와. 여러분들 그냥 봐서 모르지만 사진도 45년 경력이 있어요. 45년. 빼교정 하는 것도 40-50년 교정, 영계가서 배우고 왔다고, 하나님께 거기서 의학 기술 이런 것도 다 배워왔어요. 800가지 다 잘한다니까 여러분 그냥 인식안되죠? 자기는 못하니까 인식 안되죠. 나와같이 해보자, 하자. 뭐라도 한번 해보자. 어림도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 노래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노래 부르고 나 같은 사람은 노래를 못불러요 원래는 가사도 모르고 잘 몰라요. 곡도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가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다면 누구든지 피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자부심을 지구에서 최곱니다. 지구에서 최고의 나는 가수다. 왜? 다른 사람이 이런 구세주로서 와서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를 마지막 천년역사 피고 노래부른 사람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는거야. 그러면서 자부심갖고하는거야.

일반가수들 노래 불러도 인정하지만, 아무것도 아냐, 저노래 불러봤자 별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망길로 간다 그래버린다고. 이런 곡들은 실제 이루고 휴거된 자들이 부른 노래예요.

새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무리에 대한 바로 이 새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오늘말씀듣고 열심히 하자고 오늘 수요일이지만 한 달에 한번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매일 노래부르고 찬양하고 그런 가수들이 되길 원해요. 믿습니까? 앞으로 선생님도 또 요즘도 계속 노래 부릅니다 부르는데 목이 좀 갔지만 다 불러요

불러서 그때 주는 노래를 부르죠. 오늘은 노래 부르고 끝나고서 또 노래하고 할거야 오늘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 선포했으니까 그 노래 부르고 가려고 해. 물론 토요일까지 지켜보다가 불러야하는데 노래 하나 부르고 가려고 목이쉬었다고 쉬면 천대로 해버린다고, 안녕

여기서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잘들 있어요. 잘들 돌아가라고 소리 안합니다. 왜? 교회로 오지 않으니까 잘들있어요 안녕!